

#스토리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2년 된 A는 짙 앞 놀이터에 앉아 혼술을 하며 생각에 잠겨있다. 반쯤 술기운이 올라올 즈음,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린다. *(노래시작)*

| 노래가사 |

주인공: 여보세요? 어, 상훈아. 머해.

B: 어 우현랑 같이있냐 지금. 어 지금은 놀이터에 있지

B: 아냐 우리지금 소주나 한 잔 하지 좀. 소박하게. 그럼 오랜만에 소주나 한 잔 하자 너 얼른와라

주인공: 지금? 하아 그 우리 항상 가 던대로 간다.

주인공: 후우.

yeah.

A는 친구들(B와C)의 전화를 받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다. *(노래:18초)*

S#2. 술집

술집 의자에 앉는 A,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친구들이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노력한다.

일 끝나서 친구들과 한잔

내일은 노는 토요일이니깐

일 얘기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시간가는 줄 모르는 이 밤 - 주인공 옆으로 소주병이 들어가는 인서트 씬 생각해봤어요!

A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자 친구들은 자신의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주변 여자 사진을 보여주며 연락을 넣어보지만 A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술잔에서 자꾸 전여자친구의 얼굴이 아른거려 술잔만 바라본다.

술기운이 올라오니 사내

놈들끼린 결국엔 여자 얘기

적적해서 서로의 전화기를 꺼내

번호 목록을 뒤져보지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밖이야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술자리가 끝나가

친구들은 혼자 뚱해있는 A에게 술잔을 건내며 위로의 주를 펼친다. 시간이 흐르고 핸드폰에 알람이 울린다. 연락을 넣어보았던 여자의 연락이 오게 되어 친구들은 들뜬 마음으로 확인해보지만 “오빠 나 남친 생겼어, 담에 보자”라는 답장을 확인하며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친구들은 괜찮다는 듯이 다시 알아보고자 서로 얘기를 하지만 A는 친구들을 두고 핸드폰을 챙겨 밖에 홀로 나간다. 친구들도 A를 따라 나서서 잡아보지만 A는 어디론가 달려간다.  
(+ A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뒷모습 씬 추가)

3차로 이동하기 전인데

문자는 (왜 안 와)

일분 칠분 십분 이십분

담배와 애만 태우는 지금

답장 왔어 오빠 나 남친 생겼어

늦었어 좀 일찍

연락하지 그랬어

담에 봐 그냥 담에 낮에 봐

후회할거 알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밖이야

돈금없는 문자를 보내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S#3. 공원

A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는 전화에 울컥해 눈물을 글썽거린다.

아 진짜 술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들뜨는지

나도 잘 몰라

난 왜 그녀들을 부르는지

(4초)

A는 비틀거리며 전여자친구 얼굴인 배경화면을 바라보며 맥주를 먹는다. 갑자기 핸드폰 화면에 맥주캔과 함께 째하며 화단에 다 먹은 맥주캔을 놓으며 A는 자리를 떠난다.

갑자기 허전해 작업을 걸어대지

여기저기 오늘 밤  
나 자존심 다 버렸네  
전 여친한테 더럽게  
달라붙어 봤지만 그녀는 버력해  
너 진짜 철없게 언제까지 이럴래  
미안해 갑자기 외로운 걸 어떡해  
(4초~5초)

A는 꽃다발을 들고 급하게 거리를 뛰어간다.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 친구를 발견해 뛰어간다. A는 공원 가로등을 붙잡으며 얼굴을 부비적 거리고, 애정표현을 한다.

결떡대 결떡대 나 여기저기 다  
맘껏 들쑤시고  
다녀온 거릴 거릴 다  
또 잠들었어 (오) 프라이머리가  
텐션 떨어진다고 동훈아 넌 저리가  
(9초)

여자친구에게 줄 인형을 들고 여자친구를 만나러가는 A, 인형을 쓰다듬으며 좋아할 여자친구의 얼굴표정을 상상하며 즐거워 한다. A는 주차금지판에게 깔대기를 건네며 뒤로 눕는다. 도로에 누워있는 A는 주차금지판을 팔배게 해주며 꼭 안아준다.

이제 해가 나올 시간이 되니까  
눈이 녹듯이 사그라드는 기대감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자고 싶어  
이제 나 첫차를 타고  
졸며 집에 가  
(9초~10초)

#### S#4. 골목길

맑은 아침, 시끄러운 주변 소리로 얼굴을 A는 얼굴을 찡그리며 잠을 자기 위해 옆으로 돌아 눕는다.

창쪽에 앉아 밖을 바라보네  
나는 꾸벅꾸벅 조는데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해  
눈부셔 아침해를 보는게  
(9초)

A는 딱딱한 무언가에 눈을 뜨며 바로 앞에 주차금지 표시를 보고 화들짝 놀래 일어난다. 하지만 아직 잠에서 다 깨지 못해 비몽사몽한 채로 멍하게 자리에 앉아 있다.

정신은 맑아지지 않는 기분  
아직도 바쁜 손가락  
아직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  
해장국이나 먹고 갈래 오빠랑  
(9초)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긁적이는 A는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헝크러진 머리를 정돈하고 목소리도 점검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다. 준비를 마친 A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기위해 통화버튼을 누른다.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밖이야  
뜬금없는 문자를 보내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20초)

|음성|

A: 어, 여보세요?

?: 누구세요?

A: 내 목소리 까먹었니?

A: 나 지금 너 만나러 가려는데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 미안한데

?: 그럴수 없 어

(하아)

?: 혜지가

?: 아니라서 그래